

지역 소식통

완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완주군이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6만9874필지에 대해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30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완주군의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9.4% 상승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위해 실거래 가격에 비해 공시지가가 낮은 전주 시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기 때문에 풀이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교월동, 손뜨개교실 사업 실시

김제시 교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태환, 민간위원장 박경준)에서는 자체 특화사업으로 '오손도손' 손뜨개교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시작한 오손도손 손뜨개교실 사업은 신동마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월2회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초기부터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교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김제시제일사회복지관과 공동주관으로 진행되며 경제적 무능력감으로 소외감이 강한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자생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을 전수하고 생산품 복지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동마을 주민이자 김제시여성자원활동센터 강사 홍현일 씨의 수준별 맞춤형 지도로 수세미를 만들고 있으며, 만들어진 수세미는 추후 바자회등에 출품하는 등 수익도 예상되어 앞으로 참여 회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경찰, 이륜차 안전모 착용 홍보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이륜차 안전모 착용, 주간 전조등 켜기 등 이륜차 법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제경찰서는 매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동승자 포함) 등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뿐만 아니라 5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이륜차 특별단속 기간 홍보를 위해 이륜차 주요통행로 및 이륜차 위험장소 19개소에 홍보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적극홍보에 나섰다.

플래카드 내용은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 위반 행위 집중단속'과 '동승자도 안전모 착용'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박성일 완주군수가 30일 이서면에 소재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3~4급 고위정책과정 교육생 4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달인 33년의 경험과 농토피아 완주'를 주제로 명품 특강을 진행했다.

'33년 행정달인'의 경험담 소개

박성일 완주군수, 지방행정연수원서 특강... 관리자의 역할 중요성 강조

박성일 완주군수가 30일 이서면에 소재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3~4급 고위정책과정 교육생 4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달인 33년의 경험과 농토피아 완주'를 주제로 명품 특강을 진행했다.

박성일 군수는 이날 특강에서 새만금특별법, 세계소리축제, 동학농민혁명 등의 사례를 통해 33년의 공직생활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관리자의 역할과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군수는 "고위공직자라면 미래지향적 생각,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마음가짐, 상식과 원칙에 맞는 리더십 등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민선6기 지방선거 당시 어려운

여건에서도 당선된 원동력으로 △수많은 행정경험 △중앙 등 다양한 인맥 △정책의 다양성 △진정성 있는 군민의 힘이라고 전제하며, 고위정책과정 공무원에게 선배로서 경험과 사례를 전달했다.

박 군수는 특히 완주군 정책사례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신 농토피아 완주'를 주제로 다양한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무엇보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 완주군의 로컬푸드는 2,500여농가의 '일급'을 책임지는 등 고령화된 농촌의 경쟁력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성공모델로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로컬푸드 성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델 사업은 물론, '지역사회 통합 공공경제 플랫폼'이란 민선6기 후반기 지역 성장 모델로 다양한 정책적 연구와 실험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일 군수는 "돈을 버는 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높아져야 비로소 행복도시를 만드는 기준이 된다"며 "이 청득심(淸德心)이란 말처럼,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하며 듣는 자세로 행정을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며 함께 잘 사는 행복도시 완주를 만들어 가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피력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 결산업무 내부 만족도 94.3% '긍정적'

결산 자료 추출방법·결산시 주의사항 전달 등 조사

김제시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결산업무 완료에 따른 내부 직원 만족도 조사를 최근 김제시 내부행정망인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결산업무를 위한 결산 총괄부서의 업무 협조를 비롯하여 결산 자료 추출방법, 결산시 주의사항 전달 등으로 사업부서 결산담당자가 정확한 결산자료 작성에 대하여 전반

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부서 결산업무 담당자는 88%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만족도는 94.3%로 나타나 결산부서와 사업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긍정적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있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2016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와 출납폐쇄를 시작으로, 올해 3월 결산완료 보고,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결산

검사를 거쳐 의회 승인(안)을 제출한 상태로 의회 결산승인을 앞두고 있다. 결산업무와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17년 하반기 회계실무 교육시 결산업무 부분에 대한 교육내용을 반영하는 등 2017회계연도 결산에도 미리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하였으며, 또한 "정확한 결산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그 결과를 반영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술테마박물관 인기 관광지로 '주목'

완주군, 주민과 함께하는 콘서트 개최... 홍보활동 박차

완주군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이 전북투어패스 인기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30일 술테마박물관에 따르면 최근 '주민과 함께하는 박물관 콘서트'를 개최해 전북관광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관광객들을 비롯, 인근 주민 300여명이 참여해 지역에서 생산된 전통주를 시음하고, 술지게미, 고소미 쿠키 체험 등 다양한 박물관 프로그램을 접했다.

또 2017 신나는 예술버스 일환으로 개최된 콘서트로 가요메들리, 트로트 비보이, 퓨전난타, 클래식 현악 등 80분간 다채로운 콘서트가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행사장을 찾은 박성일 군수는 "계절의 여왕 5월에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는 콘서트 개최로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휴식처로 다시 찾는 박물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상반기 청원 법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김제시는 30일 대회의실에서 법제처가 주관하고 김제시가 주최하는 '2017년 상반기 청원 법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법제교육과)에서 지방공무원의 법제업무 능력 배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법제실무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밀착형 교육서비스이다.

김제시는 이번 교육을 위하여 1월초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추진으로 상반기에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올 하반기에는 전북도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법제전문가 인스토틘트 서비스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능력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오는 교육은 입안실무(법제처 이규태 사무관)와 법령안편집기 활용 방법(정부법입법유지보수팀 김근태 강사)에 관한 것으로 까다롭고 전문적인 내용이 아닌 실무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내용으로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공무원,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총력'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농촌사회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농번기 농촌일손돕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황중 행정지원과장과 부서원 20여명은 지난 30일 봉남면 회성리에 위치한 용인농장(농장주 허용인)을 찾아 일손이 부족하여 미뤄진 사과열매 수거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김제시에서는 연 2회씩 농가 일손이 부족한 모내기철과 수확기에 실과소·읍면동별로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새참과 점심식사도 손수 준비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일손돕기를 추진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